

코팩츠(Cofacts)와 SNU팩트체크,
두 팩트체크 서비스의 투명성에 대한 비교민족지적 분석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¹
신정원

1. 서론

지난 6월 말, 서울에서는 전세계 팩트체커들이 한데 모이는 행사가 열렸다. 전세계에서 인정받은 팩트체커들을 연결하는 커뮤니티인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IFCN)에서 세계 여러 도시들을 돌며 어느덧 10번째로 개최한 '글로벌 팩트'라는 행사였다. 행사에는 팩트체크를 직접 하는 기자들이나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팩트체크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나 학생들, 이를 지원하는 기업의 인사들도 참여했다.

인터넷,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쉽게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글로벌 팩트 행사에 참가했다. 동영상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틱톡(TikTok)의 관계자들은 행사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에게 일종의 예방접종을 해 줄 수 있는 허브를 만들기 위해, 맥락화된 정보를 갖고 어떤 주제나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상태에서 토론하는" 것, 즉 '힘 돋우기(empowerin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이용자의 힘 돋우기를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두 개의 오픈소스 알고리즘 기반 시민 참여 정책 결정 플랫폼을 사례로 들어 이 둘을 비교해 연구한 경우는 있다. Tseng(2022a)은 두 개의 창발적인 오픈소스 알고리즘 플랫폼인 스페인의 'Decide Madrid'와 대만의 'vTaiwan'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비판적 알고리즘 연구를 수행했다. 단순히 알고리즘 플랫폼을 전자참여를 알려주는 지표로 여기거나 기술결정론의 시각으로 보는 알고리즘 기술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을 넘어,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 놓인 다양한 알고리즘 플랫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민족지(comparative ethnography)적으로 분석하며, 알고리즘과 인간 간 관계를 구성하고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즉 '힘을 돋우는' 지점을 탐색했다. 그는 오픈소스 알고리즘 플랫폼이 다원적, 탈중심적, 활동적 조건에서의 '알고리즘적 힘 돋우기(algorithmic empowerment)' 과정을 창발해 냈다고 결론 지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알고리즘 플랫폼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힘을 돋우는 기회나 가능성을 주는지, 이때 도시 정치(urban politics)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더 다채로운 지역과 플랫폼에서 비교민족지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가에 따라 이용자의 힘 돋우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플랫폼의 사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마다 지정학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그렇게 다른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시 정치(urban politics)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는 팩트체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글로벌 팩트 행사에 참가한 메타(Meta)의 관계자들 역시 플랫폼을 운영할 때 각 지역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메

¹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진리장학 프로그램에서 소정의 지원금을 받아 수행했으며, 연구 과정에서 미디어학부 박아란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타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로운, 폭력적인 허위조작정보를 찾아서 알리고 이용자들이 그걸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시민/사회/조직적 파트너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배경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고 팩트체크를 하는 지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Tseng(2022)이 두 개의 정책 결정 플랫폼을 비교해 알고리즘 플랫폼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힘을 돋우는 지점을 연구한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팩트체크 플랫폼을 비교해 알고리즘 플랫폼이 팩트체크 과정에서 시민의 힘을 돋우는 지점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틱톡의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힘을 돋운다는 것은 시민에게 맥락화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그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숙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돕는 걸 의미한다. 팩트체크 플랫폼이 시민의 힘을 돋우는 방식은 다름 아닌 '투명성'이다. 이 연구는 대만의 팩트체크 플랫폼 '코팩츠(Cofacts)'와 한국의 팩트체크 플랫폼 'SNU팩트체크'가 어떤 방식으로 투명성을 구현하는지 비교 분석한다.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 이 연구는 대만과 한국의 지정학적,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한다.

이 연구는 어떻게 하면 팩트체크 플랫폼이 투명성을 실천하고 시민의 힘을 돋우는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연구자나 팩트체커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미디어 효과 이론이나 저널리즘 이론, 알고리즘 공식과 같은 전문적인 이론을 통한 분석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제 사례로서 두 팩트체크 플랫폼이 운영되는 과정을 짚어보며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독립 기관인 '로지컬리 팩츠(Logically Facts)'의 관계자들은 이번 글로벌 팩트 행사에서 연구자와 팩트체커들의 간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연구자들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연구와 그 결론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연구는 팩트체크 플랫폼이 투명성을 실천할 방법을 이론적인, 혹은 철학적인 방식으로 고찰하기보다, 두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팩트체커들이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선례를 제공하려 한다.

2. 코팩츠 그리고 SNU팩트체크, 대만 그리고 한국

이 연구가 비교 분석하는 대상은 대만의 팩트체크 플랫폼 '코팩츠(Cofacts)'와 한국의 팩트체크 플랫폼 'SNU팩트체크'이다. 시민 주도의 대중 협력 및 챗봇 기반 플랫폼인 코팩츠와 제휴 언론사 기자 주도의 플랫폼인 SNU팩트체크는 그 운영 방식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다. 그 차이는 대만과 한국의 지정학적, 사회문화적 배경과 팩트체크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먼저 대만에는 '코팩츠(Cofacts)'라는 팩트체크 플랫폼이 있다. 코팩츠의 중국어 이름은 '진짜 가짜(真的假的)'이다.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마주했을 때 그 메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주겠다는 의미다. 코팩츠 웹사이트에서 코팩츠를 소개하는 페이지(<https://en.cofacts.tw/about>)에서는 코팩츠를 '공중의 공동 노력으로 신뢰도를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신중하게 리뷰하고 논의하기 위해 군중(크라우드)협력과 챗봇을 통해 운영되는 정보 확인 플랫폼'이라고 설명한다.

디지털 시대 허위조작정보는 오보 그 이상의 의미이다. 신문이나 TV 뉴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메신저, 소셜 미디어로도 정보를 주고받는 세상이 되면서,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유통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대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 메신저 '라인(LINE)'을 쓴다. 타이완 네트워크 정보 센터(Taiwan Network Information Center)의 2022년 타이완 인터넷 리포트(Taiwan

Internet Report 2022)에 따르면, 대만 인터넷 이용자의 79.65%가 인스턴트 메신저 라인을 이용했다.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라인은 대만에서 일상의 이야기들이 떠도는 곳이다. 뉴스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많은 라인 메시지를 통해서도 허위조작정보가 떠돌아다닐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인스턴트 메신저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 허위조작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게 수많은 일상의 메시지들을 전부 팩트체크하자는 게 코팩츠의 아이디어다.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를 마주할 때, 팩트체크 콘텐츠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댓글이나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에 닿지 못하면 인터넷 이용자는 결국 루머, 즉 허위조작정보를 그대로 믿게 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목소리'들을 전부 들리기 쉽게 만들자는 것이다.

코팩츠를 기획해 아직까지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조직은 대만의 시민 해킹 조직 '거브 제로(g0v)'다. 0, 즉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부(government)의 역할을 다시 고민하자는 뜻의 이름을 가진 거브 제로(g0v)는 정부를 '포크(fork)'하자는 목표를 가진 시민 해커들에 의해 지난 2012년 결성됐다. 포크, 즉 'fork'는 영어로 '갈라지다', '나뉘다', 혹은 '(갈림길 등에서 어떤) 길로 가다'라는 뜻이다. 해킹 분야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원본, 즉 소스 코드를 전부 복사해 둔 뒤 새 독립적인 버전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크라고 하는데, 이 포크라는 개념을 정부 그리고 민주주의에 적용한 시민 해커들은 정부 또한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간주하고 새로운 버전의 정부를 직접 시험해 보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기술적인 개선을 하는 과정에 참여한다(전병근, 2021). 정부의 역할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시민이 직접 개선하거나 대신하는 일종의 디지털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 해킹의 과정에 관심 있는 대만의 시민 해커들이 한데 모인 공공 조직이 바로 거브 제로다. 여기서 활동하는 시민 해커 중에는 현 대만 정부의 디지털부 장관 오드리 탕도 있다. 탕 장관을 비롯해 프로그래머, 학자, 변호사, 교수, 기자, 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두 '기여자'라는 동등한 직책을 갖고 거브 제로라는 조직에 속해 있다. 이들은 두 달에 한 번 해커톤 행사를 열어 새로운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상하거나 이전에 만든 플랫폼을 개선하는 회의를 한다. 코팩츠 역시 거브 제로 해커톤 행사에서 구상, 기획, 수정의 과정을 거쳤다. 허위조작정보를 거르고 팩트체크를 하는 행위 역시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본 시민 해커들이 그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을 개선해 만든 결과물이 바로 코팩츠인 것이다.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고 팩트체크를 하려면 그 사실 확인 과정을 주도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라인과 같은 온라인 메신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용자의 메시지를 검토하고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지 감독한다고 하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거브 제로는 정부가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시민 주도의 공공 조직이지만 결국 정부가 디지털 민주주의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기 때문에, 거브 제로가 라인 메신저 내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처음 기획할 당시에는 거브 제로가 만든 플랫폼이 정부가 사람들의 소셜 미디어 기록,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감독하는 걸 도울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Hsuan, 2018).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정부 통제 없이 인스턴트 메신저 그룹에서의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반드시 고민해야 했다. 고민의 결과 시민 해커들은 결국 어떤 메시지의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고, 어떠한 이유로 해당 메시지가 진짜 또는 가짜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전송'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라인에서 검색, 이해, 전송의 과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는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대만에는 존재했다. 2015년 설립된 대만의 비영리 팩트체크 조직 '마이고펜(MyGoPen)'은

라인에서 1대1로 이용자의 허위조작정보 의심 제보를 받고 팩트체크를 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하지만 마이고펜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메시지가 '홍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다른 이용자에게서 이미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 이전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메시지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 팩트체크 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이전에 제기된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Han, 2018).

그렇게 2016년에 등장한 플랫폼이 바로 코팩츠다. 라인 등 인스턴트 메신저나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발견하면 라인 코팩츠 챗봇에게 해당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볼 수 있다. 이용자가 의심되는 메시지로 제보한 내용은 코팩츠 데이터베이스에 제출되고, 이는 코팩츠 웹사이트에 뜬다. 코팩츠 웹사이트에서 팩트체크를 담당하는 또 다른 이용자들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한 근거와 결과를 댓글처럼 달아 최종적으로 다른 이용자들의 리뷰와 토론에 의해 해당 메시지가 허위조작정보인지 아닌지 결론이 나면, 코팩츠 챗봇이 그 메시지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했던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답장해 준다. 메시지가 제보되고 검증된 모든 기록은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다른 이용자가 비슷한 내용으로 제보를 하거나 검증을 필요로 할 때 자동으로 검색되거나 답장될 수 있도록 한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코팩츠 플랫폼을 공동으로 설계한 시민 해킹 커뮤니티 거브 제로 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 내에서 허위조작정보 의심 사례를 발견해 이를 이슈로 제기하는 이용자, 제기된 이슈에 관해 사실검증을 한 후 원인이나 설명과 함께 답변하는 팩트체커들, 사실검증 결과를 확인하고 리뷰하며 가장 질 높은, 적절한 답변을 선택하는 에디터들 모두 팩트체크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 혹은 기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게 코팩츠의 특징이다. 플랫폼을 만든 것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제기된 문제에 답변을 다는 것도, 달린 답변들을 평가하는 것도 시민이다. 즉 코팩츠 플랫폼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듣는 모든 행위의 주체가 바로 시민이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팩트체크 서비스 'SNU팩트체크'의 운영 주체는 일반 시민이 아니다. SNU팩트체크 웹사이트(<https://factcheck.snu.ac.kr/home/snufactcheck>)는 SNU팩트체크를 '언론사들이 검증한 공적 관심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정보서비스'라고 소개한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가 1963년 설립한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SNU팩트체크센터는 웹 플랫폼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센터에 참여하는 제휴 언론사들은 팩트체크를 수행해 SNU팩트체크센터가 제공하는 웹 플랫폼에 팩트체크 콘텐츠를 게시한다.

SNU팩트체크 사이트는 제휴 언론사로 하여금 검증 대상, 검증 방법, 검증 내용, 검증 결과, 검증 기사, 그리고 근거자료를 모두 포함해 팩트체크를 한 내용을 업로드하도록 한다. 팩트체크 결과에 따라 '거짓', '대체로 거짓', '사실반 거짓반', '대체로 사실', '사실', '판단유보' 등 뱃지가 생성된다. 다른 언론사들이 검증 내용과 그들이 내린 판정 결과를 추가할 수도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언론사들 간 판정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논쟁중'이나 '판단유보' 같은 뱃지가 생성되기도 한다. 독자들은 반응이나 댓글을 남기거나 SNU팩트체크에서 소속 언론사들이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제안할 수는 있지만, 직접 팩트체크를 수행하거나 검증 결과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검증하고 판단하는 주체는 소속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를 수행하는 기자들이다.

센터의 웹 플랫폼으로는 SNU팩트체크 웹사이트(<https://factcheck.snu.ac.kr/>) 뿐만 아니라 네이버 뉴스 사이트 내 팩트체크 섹션(<https://news.naver.com/factcheck/main>)도 있다. 제휴 언론사들은 각자 팩트체크를 전담하는 코너를 만들거나 팀을 꾸려 직접 팩트체크를 할 사안을 고르고 팩트체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자사의 콘텐츠로 만들어 올리는 동시에 SNU팩트체크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따로 제작해 올린다. 지금까지 제휴 언론사들은 팩트체크 과정을 수행한 결과 만들어진 기사나 리포트를 자사 플랫폼(신문이나 TV 뉴스, 자사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는 동시에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에도 기존에 다른 형태의 뉴스 콘텐츠를 올리던 방식 그대로 올려왔다. 이에 더해 SNU팩트체크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팩트체크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한 콘텐츠를 SNU팩트체크 웹사이트와 네이버 뉴스 사이트 내 팩트체크 섹션에 따로 올려왔다. 그러나 지난 9월 26일부로 네이버가 뉴스 홈 내 팩트체크 섹션에서 SNU팩트체크 사이트와 같은 방식의 콘텐츠 정렬을 중단하면서 해당 섹션에도 팩트체크가 아닌 보통의 다른 뉴스 기사들이 정렬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팩트체크 뉴스 콘텐츠가 단순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SNU팩트체크센터를 금전적으로도 지원해 온 네이버는 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역시 중단한 상태다.

SNU팩트체크센터는 언론사가 팩트체크 과정에서 자료 조사나 기사 작성, 콘텐츠 업로드 등을 도울 인턴들을 직접 선발해 네이버의 자금으로 인턴들에게 급여를 주며 이들을 언론사에 지원하는 '팩트체크 인턴십' 프로그램을 해 왔다. 또한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언론사에게 지원금을 주는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언론인들이 팩트체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전문 팩트체커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팩트체크 디플로마' 과정, 우수한 팩트체크 기사를 응모받아 시상하는 '한국팩트체크대상'이나 센터가 직접 찾아 선정해 시상하는 'SNU 팩트체크 우수상' 등 다양한 형태로 소속 언론사들이 활발하게 팩트체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네이버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뒤에는 인턴십이나 취재보도 지원 등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센터에서는 팩트체크를 하려는 언론인들을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유럽기후재단(European Climate Foundation, ECF)의 후원으로 '기후위기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을 시작하기도 했다.

소속 언론사는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SNU팩트체크센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SNU팩트체크센터는 소속 언론사의 팩트체크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네이버 역시 금전적 지원은 하지만 센터의 운영 방식이나 콘텐츠의 제작 과정 및 결과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기후위기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에서 자금 지원을 맡게 된 유럽기후재단 역시 팔길이원칙을 지키기로 센터와 합의했다. 한국에서 보수, 진보, 중도 성향으로 여겨지는 언론사들이 모두 SNU팩트체크센터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이들 언론사는 센터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한국 언론 생태계는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보다는 과도한 상업적 경쟁 속에서 보수 진영 사이에서, 혹은 진보 진영 사이에서 충성심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며 양극화돼 왔으며, 이를 바라보는 한국의 미디어 수용자들은 한국 저널리즘의 가장 큰 문제로 편향된 보도를 지적해 왔다(Chong, 2023). 이런 가운데 SNU팩트체크는 보수 성향 언론과 진보 성향 언론 소속 기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플랫폼이 된 것이다.

3. 팩트체크 플랫폼의 투명성

앞서 글로벌 팩트 행사에서 틱톡 관계자들은 맥락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충분한 토론을 뜻하는 '힘 돋우기(empowerment)'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Tseng(2022a)은 알고리즘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다원성과 접근성, 활동성과 투명성, 그리고 탈중심성을 강화해 시민이 정치적 변화나 행동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거나 관점을 형성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알고리즘

적 힘 돋우기(algorithmic empowerment)' 개념을 중시했다. 본 연구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팩트체크의 과정은 결국 시민의 힘 돋우기(citizen empowerment)을 위한 행위라고 해석했다. Lobo-Pulo 외 3인(2019)은 Aladalah 외 2인(2015)을 인용해 '시민의 힘 돋우기(citizen empowerment)'를 정하는 기준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시민 개개인이 어떤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인 '영향력', 시민 각자가 어떤 행동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인 '능력', 어떤 사안이나 그 목적의 가치나 중요성을 뜻하는 '유의미성' 그리고 어떤 활동에서의 선택권이나 자율성을 뜻하는 '통제력' 이렇게 4가지 요인을 제시한다.

시민의 힘을 돋우는 것은 Lobo-Pulo 외 3인(2019)이 제안한 대중 관여(public engagement)의 기준 5가지 중 하나이다. 그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정치나 정책 토론의 장이 됐지만 실리콘밸리 중심의 기술 생태계에서 기술이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설계되면서 이들 플랫폼이 이용자의 힘 돋우기를 신경쓰기보다는 조작(manipulation)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정치적 허위조작정보나 '가짜뉴스', '반향실'과 같은 이슈가 현대 민주주의를 분열시키는 촉매제라고 꼬집으며, 디지털 플랫폼이 대중 관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 돋우기 뿐만 아니라, 숙의할 시간, 투명성과 유용한 데이터, 합의에 대한 열망, 동적/정적 관여 이렇게 다섯 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틱톡 관계자들과 Tseng(2022a)이 말한대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힘을 돋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허위조작정보는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응하는 팩트체크의 과정은 중요하다. 걸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하고, 이용자 스스로가 유능하게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 팩트체크가 된 올바른 정보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일종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힘 돋우기를 만들어내는 건 다른 아닌 대중 관여이다. 이는 시민이 힘을 돋울 뿐만 아니라, 풍부한 맥락과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때로는 동적으로, 때로는 정적으로 충분히 참여하고 숙의해서 서로 간의 합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걸 뜻한다.

이러한 근거로 처음 이 연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해 팩트체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대중 관여를 중시해야 한다는 가정을 내렸다. 그래서 연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두 플랫폼이 각각 대중 관여(public engagement)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비교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중 관여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할 수가 없었다. Lobo-Pulo 외 3인(2019)은 대중 관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걸 지양한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대중의 손에서 이뤄지는 것만이 유의미한 관여는 아니라면서, '관여'라는 개념에 대해 엄격한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이를 모든 사안에 적용하다 보면 관여나 힘 돋우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극복 불가능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지적한다. 결국 관여를 설명하는 하나의 명확한 정의는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가 주목한 사안인 팩트체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개의 플랫폼에 있어 관여라는 개념은 무엇인지를 따로 정의해야 했다.

본 연구에서는 힘 돋우기, 알고리즘적 힘 돋우기, 그리고 대중 관여의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투명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힘 돋우기의 과정에서는 맥락화된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보 제공 주체가 높은 투명성을 지향해야 한다. 알고리즘적 힘 돋우기를 위해서 강화해야 할 다섯 가지 특성 중 한 가지 역시 투명성이다. 또 투명성은 디지털 플랫폼이 대중 관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해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인 팩트체크에서는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투명성과 진실성을 끌어내는 팩트체크 플랫폼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많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해결책으로도 활용된 걸로 평가되기도 한다(Torres-Toukoumidis 외 2명, 2021).

디지털 공간에서의 투명성, 알고리즘적 투명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진 건 맞지만, 온라인 참여 문화에 관한 많은 연구는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그 시스템 안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곧 투명성의 이익이라며 이 둘을 동일시하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정을 불러넣어왔다(Ananny & Crawford, 2018). 이 가정에 따르면 대학과 언론사가 운영하는 조직 내에서 제휴 언론사 소속 기자들만 팩트체크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SNU팩트체크에 비해 인터넷 이용자면 누구나 팩트체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코팩츠가 더 투명성의 이익을 많이 갖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하지만 투명성이란 무엇인지, 투명성의 이익은 또 무엇인지에 대한 가정은 아직 분명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투명성이란 무엇인지 아직 하나로 분명하게 확정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SNU팩트체크가 제시하는 원칙과 코팩츠가 제시하는 행동 강령,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가 제시하는 원칙 강령과 거브 제로가 제시하는 행동 강령은 각각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해석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팩트체크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투명성이 코팩츠와 SNU팩트체크 이렇게 두 개의 팩트체크 플랫폼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탐구함으로써 이 연구는 팩트체크 서비스를 설계할 때 힘 돋우기와 대중 관여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기준 중 하나인 바로 이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4. 비교민족지적 분석

이 연구는 팩트체크 서비스가 어떤 투명성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개의 팩트체크 서비스를 비교 분석한다. 프로그래머들과 디자이너들의 상호작용의 산물인 알고리즘을 사회학적 접근법으로 공부하는 알고리즘 연구 방법들 중 하나로 Kitchin(2017)은 동일한 작업이 다른 플랫폼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팩트체크라고 하는 동일한 작업이 코팩츠와 SNU팩트체크라는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플랫폼의 운영 방식을 비교하는 점검을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다. 비교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두 서비스에 접속해 각각의 웹사이트나 플랫폼이 짜여진 형태를 지켜보는 것을 넘어, 각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해 온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시민으로서 직접 두 플랫폼에 참여한다.

Kitchin(2017)에 따르면 어떤 알고리즘의 작용에 대해 연구할 때 그 알고리즘의 코드를 해체하고 거꾸로 분석하는 걸 넘어 그 코드를 만들고 운영하는 디자이너나 엔지니어 등 관련자들을 인터뷰하고 그 코딩 팀, 즉 해당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조직에 대한 민족지적 분석을 수행해야만 해당 알고리즘의 생산 이면의 가정이나 목적 같은 이야기들까지도 밝혀낼 수 있다.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알고리즘 혹은 소프트웨어가 그 이면의 규제나 법, 지식의 형태, 제도적 배열, 재무 조건, 예상되는 이용자나 시장 범위와 같은 더 넓은 사회기술적 요인에 의해 어디에 놓이게 되고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Kitchin(2017)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Tseng(2022b)은 참여관찰이나 인터뷰와 같은 민족지적 방법이야말로 디지털 디자인과 유저 인터페이스를 공부하기 위한 보통의 효과적 방식이라며, 이러한 민족지적 방법은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 모두에 걸쳐 민주적 실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민족지적 분석의 바탕이 되는 건 현지조사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 방법으로는 참여관찰과 인터

부가 있다. 이 연구 역시 두 개의 팩트체크 서비스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택했다. 팩트체크 서비스 이면의 정치/법/사회/문화/경제적 배경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다.

일단 참여관찰을 하기는 매우 용이했다. 팩트체크 서비스는 디지털 공간에 플랫폼 형태로 존재하며,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운영되므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접근해 이용할 수 있다. 연구자 역시 한 사람의 세계시민이자 민주시민으로서 코팩츠와 SNU팩트체크의 이용자로 참여해 두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리했다. 나아가 본 연구자는 두 플랫폼을 운영하는 조직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모이는 과정에도 참여해 그 과정을 관찰하고자 했다. 코팩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브제로 기여자들이 두 달에 한 번 모이는 해커톤 행사에 지난 8월 26일 참가해 서비스 운영 개선에 대한 논의 과정을 직접 관찰했다. SNU팩트체크를 운영하는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여는 회의는 학부생, 즉 일반 시민 신분으로 참여할 수 없으므로, 대신 지난 6월 28-30일 사흘 간 서울에서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IFCN) 소속 서명기관 중 하나인 SNU팩트체크가 주도적으로 개최한 '글로벌 팩트 10' 행사에 참가해 SNU팩트체크의 글로벌 네트워킹 과정을 직접 관찰했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인터뷰 역시 진행했다. 기자도, 학자도 아닌 일개 학부생의 입장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을 섭외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대만 코팩츠 관계자 5명과 한국 SNU팩트체크 관계자 5명, 총 10명을 인터뷰했다. SNU팩트체크 관계자 섭외 과정에서는 글로벌 팩트 10 행사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코팩츠 관계자는 글로벌 팩트 10 행사에서 만난 대만 팩트체커들의 소개로 섭외할 수 있었다. SNU팩트체크에서는 조직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학자 2명과 그 안에서 실제로 기사를 작성해 올리며 활동했던 기자 2명, 그리고 SNU팩트체크 운영 관련 독립 의사결정 기구인 SNU팩트체크 위원회 소속 언론인 1명을 모두 대면으로 인터뷰했다. 코팩츠에서는 조직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언론인 1명과 프로그래머 1명, 그리고 조직 내에서 각각 팩트체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계약 통역사로 활동하는 시민 3명을 인터뷰했다.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 인터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 대면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언론인과 프로그래머, 팩트체커 이렇게 3명은 대면으로 인터뷰했으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계약 통역사 이렇게 2명은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총 10명의 관계자가 인터뷰 내용을 논문에 익명으로 반영하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참여하는 데 동의했다. 이 글에서는 한국 SNU팩트체크 관계자를 A~E씨, 대만 코팩츠 관계자를 F~J씨로 표기한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각 팩트체크 플랫폼이 어떤 투명성을 지향하며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는 데 집중했다. 플랫폼 관계자들에게 플랫폼 자체의 특성이나 그 안에서 참여한 경험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두 플랫폼이 동일하게 혹은 다르게 바라보는 투명성의 개념을 확정하려 노력했다. 일단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코팩츠 관계자들에게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코팩츠에 참여하게 됐고 현재 그 안에서 무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팩츠에 합류하기 전부터 합류한 뒤까지 코팩츠에 대한 인지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코팩츠가 시민들의 팩트체크 과정을 어떤 식으로 돕는지, 코팩츠 조직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나아가 코팩츠가 지향해야 할 투명성과 불편부당성, 시민 참여의 형태와 팩트체크가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방식을 물었다. SNU팩트체크 관계자들에게는 각자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에 더해 팩트체크 인턴십 프로그램을 비롯한 SNU팩트체크센터의 언론사 지원 사업, 자금 마련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그리고 SNU팩트체크가 지향해야 할 투명성, 편파성 논란이나 불편부당성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는 원인과 그 해결책, 팩트체크가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방식 등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그 참여자가 관련 되지 않은 다른 플랫폼을 설명하고 그 플랫폼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다르다고 느껴지는지, 그렇게 다른 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코팩츠 관계자들에게는 SNU팩트체크에서 기자 주도로 팩트체크 콘텐츠가 생산되는 방식을, SNU팩트체크 관계자들에게는 코팩츠에서 시민 주도로 팩트체크 콘텐츠가 생산되는 방식을 질문한 것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답변은 두 플랫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정한 원칙이 각각 투명성을 어떻게 정의했고 그에 따라 두 플랫폼을 운영한 이들이 어떤 투명성에 집중해 팩트체크라는 행위를 해왔는지에 대해 알려주었다. 다음 장에서는 코팩츠와 SNU팩트체크가 바라본 투명성이라는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5. 코팩츠 그리고 SNU팩트체크의 투명성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 논의에 참여하는 서명기관(signatory)이 되기 위해서는 IFCN의 원칙 강령(Code of Principles)을 준수해야 한다. 이 원칙 강령은 IFCN에 소속된 전세계의 팩트체커들이 함께 상의해 정한 것으로, 팩트체크를 하는 기관들이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을 정리했다. 총 5개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IFCN 원칙 강령 웹사이트에 전부 공개돼 있다 (<https://ifcncodeofprinciples.poynter.org/know-more/the-commitments-of-the-code-of-principles>).

첫번째 원칙은 '비-당파성과 공정성에의 헌신(A commitment to Non-partisanship and Fairness)'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IFCN의 서명기관은 어디서 누가 한 주장이던 동일한 수준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사실 검증을 해야 하고, 특정 인물이나 정당 혹은 기타 정치적 세력과 연관돼서는 안 되며, 상업적 관계나 다른 이해관계가 얽힌 정보원이 있을 경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두번째 원칙은 '정보원의 기준과 투명성에의 헌신(A commitment to Standards and Transparency of Sources)'이다.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근거를 전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그 출처, 즉 정보원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정보원과 얽힌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모두 확인하고 공개한다는 원칙은 첫번째 원칙에 이어 두번째 원칙에 다시 한번 언급돼 있다. 추가적으로, 1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차 자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부차 자료를 사용할 경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 되도록 둘 이상의 정보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여기에 들어가 있다.

세번째 원칙은 '자금과 조직의 투명성에의 헌신(A commitment to Transparency of Funding and Organization)'이다. 이 원칙은 IFCN의 서명기관들이 각자의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그 안에 각 기관의 자금 현황에 더해 조직 구조, 편집권자,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의 프로필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이용자들이 편집 팀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구축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네번째 원칙은 '방법론에 대한 기준과 투명성에의 헌신(A commitment to Standards and Transparency of Methodology)'이다. IFCN의 서명기관이 되려면 팩트체크 콘텐츠를 선정, 기획하고 조사, 제작, 발간하는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웹사이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들을 팩트체크하면 좋을지를 이용자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네번째 원칙에 해당한다.

마지막 다섯번째 원칙은 '개방적이고 정직한 정정 정책에의 헌신(A commitment to an Open &

Honest Corrections Policy)’이다. 이 원칙은 IFCN의 서명기관들이 정정 및 항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한다. 팩트체크 콘텐츠 중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IFCN의 서명기관들은 각 기관의 정책에 부합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투명하게 수정의 과정을 거쳐 독자들이 수정된 버전을 최대한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NU팩트체크는 IFCN의 원칙 강령을 참조해 일곱 개의 ‘SNU팩트체크원칙’을 만들었다. 팩트체크는 불편부당성과 비-당파성을 견지해야 하며, 정당한 공적 관심사와 관련 있는 것이나 실질적 근거를 동원해 사실성을 가릴 수 있는 것 또는 시민이 제안한 것을 팩트체크의 검증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팩트체크의 과정은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팩트체크의 근거자료들은 확인가능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팩트체크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정직하게 수정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며, 팩트체크의 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팩트체크의 주체들은 정당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SNU팩트체크원칙은 IFCN의 원칙 강령과 거의 유사하다.

D씨는 IFCN의 원칙 강령에 등장하는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재원의 투명성과 조직의 투명성”, 그리고 “방법론적인 투명성”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4명의 관계자들이 중점을 둔 투명성도 재원의 투명성, 조직의 투명성, 그리고 방법론적인 투명성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투명성으로 정리된다.

먼저 재원의 투명성에 대해 B씨는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공적으로 받은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 운영의 투명성, 회계의 투명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확보가 돼야” 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고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자 하는 SNU팩트체크센터의 공익적 목적에 공감해 센터가 공적 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왔다. 결국 센터가 네이버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공적 재원에 해당하므로, 이 자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C씨는 “한국 팩트체크, 보편적으로 많은 기성 언론이 하는 팩트체크에 재정의 투명성은 그다지 귀속력이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SNU팩트체크 내에서 실질적으로 팩트체크를 수행하는 건 한국의 기성 언론사들에 소속된 기자들이다. 그 기자들이 속해 있는 언론사 조직은 보통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며, 이들은 팩트체크 전문매체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 팩트체크를 통해 재원을 공급받고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다. 언론사의 재정이 팩트체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C씨는 SNU팩트체크가 지켜야 할 투명성 중 재정의 투명성을 비교적 후순위로 둔다. 게다가 네이버의 지원으로 진행되던 팩트체크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팩트체크 디플로마 과정 등 SNU팩트체크센터의 언론사 지원 프로그램까지 중단되면서 SNU팩트체크센터가 팩트체크 과정에서 재원의 투명성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떨어졌다.

SNU팩트체크센터가 조직의 투명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실천하는지는 SNU팩트체크 ‘위원회 소개’에 나와있다. SNU팩트체크 사이트 내에서 팩트체크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는 부분에는 팩트체크 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 3인은 SNU팩트체크 서비스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제휴 언론사 소속 인사가 맡는다고 적혀 있다. SNU팩트체크가 생각하는 조직의 투명성이 무엇이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 왜 제휴 언론사 소속 인사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시켰는지에 대해 설명한 건 B씨였다. B씨는 SNU팩트체크센터가 “기본적으로 서울대 안에 설치돼 있는 기구”, 즉 “학자들의 기구, 내지는 학내 기구”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외부인들, 언론과 관련된 센터이고 기구니까 거기에 언론계 인사들이 같이 합류를 해서 그 센터의 운영 방향이나 원칙 같은 걸 확인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SNU팩트체크센터가 서울대학교 언론정

보연구소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닌 언론사와 대학 등에서 일하는 각계각층의 언론계 인사들이 함께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점이 바로 SNU팩트체크가 지향하는 '조직의 투명성'이라는 것이다.

인터뷰 참여자가 되어준 SNU팩트체크 관계자 5명 중 4명이 가장 주목한 투명성은 재원의 투명성도, 조직의 투명성도 아닌 바로 방법론적인 투명성이었다. B씨는 "취재원을 밝히고 그 다음에 취재 근거가 되는 원 자료들, 원 소스들을 밝히는 것, 그것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지만, SNU팩트체크가 중점을 뒀다 할 투명성의 종류 세 가지를 나열했을 뿐 그 중에 어떤 형태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지 따로 우열을 가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은 모두 방법론적인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자신의 취재원과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언론인들에게는 자신의 내부 레시피를 공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SNU팩트체크가 유일하게 취재의 모든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다는 것이 투명성"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뉴스가 틀린 경우 이는 단순히 기사의 오보와는 달리 굉장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을 안고 팩트체크 과정에서 검증 근거로 이용했던 자료를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것이야말로 SNU팩트체크가 중점을 둔 투명성이자 SNU팩트체크라는 팩트체크 뉴스 플랫폼이 가진 강점이라는 것이다. C씨는 팩트체크의 근거들의 투명성이 "실제로 상당한 정도의 신뢰도 있고 직결되는 문제"라며 "기존의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과 차별화하는, 명목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D씨는 "저널리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법론적인 투명성"이라며 "그 방법론적인 투명성을 위해서 검증 근거를 다 밝히라고 하고 가급적 실명 인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Coddington 외 2인(2014)은 증거를 기반으로 한(evidence-based) 과학적 객관주의(scientific objectivity)의 방식으로, 마치 가설을 세우고 극 말이 옳은지 그른지 증거를 가지고 검증하듯 평가(evaluate)하는 것이 팩트체크 저널리즘이라고 규정한다.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지 여부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인 것과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다. 그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방법론적인 투명성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이유다. E씨는 이 과정을 학술 논문을 써 내는 과정에서의 동료 심사(peer review) 시스템에 빗대어 설명한다. 학술 논문의 동료 심사 시스템은 동료들이 논문의 내용이 재현 가능한지 검증하게끔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나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E씨에 따르면 SNU팩트체크는 학술 논문과 마찬가지로 기자가 팩트체크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린 근거를 투명하게 다 공개해서 누구든 와서 확인하고 문제나 이의가 있으면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 또 기자가 가서 대응해주기도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로 방법론적인 투명성을 구현하기 시작했다. E씨는 이러한 투명성을 '설명 책임'이라는 개념과도 연결지어 설명한다. 공적 담론 체계 안에서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고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해주는 팩트체크의 과정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공론의 시작, 논의의 시작이 되는 맥락화된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팩트체크 결과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근거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코팩트는 IFCN의 원칙 강령을 참조하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협력해서 허위조작 정보로 의심되는 메시지를 검증하는 코팩트는 클라우드소싱 기반의 플랫폼으로, 그 안의 수많은 이용자들 모두에게 원칙 강령을 강제하는 건 꽤 어려운 일이다. H씨는 IFCN이 원칙 강령을 설정한 것처럼 팩트체크 플랫폼이 원칙을 정하는 건 참여를 가로막는 "높은 장벽"이라고 인식하면서, 이러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모든 기여자들에게 이 원칙 강령을 강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

며 일종의 “경계선”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일례로 팩트체크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 강령 중에는 비-당파성을 지키기 위해 찬반 논쟁이 있는 사안에서는 양측 주장을 모두 체크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하지만 코팩츠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과정에 기여하는 이용자 개개인이 이 원칙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양측 주장을 모두 확인하도록 전문적으로 충분히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팩츠는 이용자 각자가 이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논쟁이 있는 사안에서 어떤 이용자들은 하나의 주장을 검증하도록 하고 반대 주장은 또 다른 이용자들이 검증하도록 해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주장이 코팩츠 이용자들 중 누군가에 의해 결국은 전부 검증될 수 있도록 이끈다. 스스로 모든 주장을 검증할 수는 없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한 결과가 클라우드 소싱 시스템 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서 하나로 모여 완전한 팩트체크 결과를 만들어낸다. H씨는 “IFCN처럼 장벽을 많이 키우지 않고도 핵심적인 가치는 여전히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를 할 때 지켜야 할 모든 원칙 강령을 강제하는 대신, 코팩츠에서 꼭 필요한 가치를 최소한으로 정해 이용자들에게 그것만 지켜 달라고 요청하자는 것이다.

그 최소한의 규정이 바로 2016년에 코팩츠를 탄생시킨 거브 제로의 기여자들이 이듬해인 2017년 제정한 ‘행동 강령’이다. 당시 기여자들은 코팩츠에도 거브 제로의 행동 강령과 같은 일종의 규정을 세우기를 원했다. 그래서 코팩츠의 공동 창립자들은 로스쿨 학력이 있는 이들의 자문을 구해 행동 강령을 만들었다. 거브 제로 기여자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당시 행동 강령에 대해 자문한 뒤로 아직까지 코팩츠에서 법적 문제나 허가 문제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해 주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G씨는 당시 행동 강령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로 “협력을 위해서”라는 이야기에 더해 “또한 고소당할 거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팩트체크를 수행하는 플랫폼은 쉽게 고소당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코팩츠 역시 가끔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사람들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팩츠의 행동 강령은 사실상 이용 약관(terms of use)처럼 기능하며 괴롭힘 문제를 방지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코팩츠가 탄생한 시민 해킹 조직 거브 제로의 행동 강령에서 영향을 받았다. 거브 제로의 ‘모임 행동 강령(Conference Code of Conduct)’은 성별, 성적 지향이나 표현, 나이, 장애, 물리적 외양, 신체 크기, 인종, 민족성, 종교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거브 제로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참가자들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도 용인되지 않는다. 코팩츠의 행동 강령 역시 어떠한 종류의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으며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모든 참석자를 존중하며 모두를 위한 편안한 행사 분위기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코팩츠에서는 재원의 투명성, 조직의 투명성, 방법론적인 투명성에 어떻게,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을까. 코팩츠 역시 SNU팩트체크처럼 세 종류의 투명성을 모두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방법론적인 투명성을 가장 중시하는 SNU팩트체크와 달리 코팩츠는 조직의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코팩츠를 탄생시킨 커뮤니티 거브 제로를 소개하는 웹사이트(<https://g0v.tw/intl/en/>)는 거브 제로를 ‘정보 투명성, 열린 결과와 열린 협력을 그 핵심 가치로 하는 탈중심적 시민 기술 커뮤니티’로 소개한다. 코팩츠의 관계자이자 거브 제로의 기여자인 H씨가 언급한 ‘핵심 가치’ 역시 이 ‘정보 투명성’, ‘열린 결과’와 ‘열린 협력’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의 결과와 과정을 개방하는 거브 제로의 문화는 코팩츠에도 영향을 끼쳐 결국 코팩츠가 조직의 투명성을 중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열린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에 따라 코팩츠에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메시지를 제보, 해당 메시지가 사실인지 검증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검증한 기록을 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의 방식으로 플랫폼 내 협력적 팩트체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열린 결과’라는 핵심 가치는 검증 과정이 클라우드소싱 기반의 협동 플랫폼 안에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수행되도록 한다. 협력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 투명성’이라는 핵심 가치가 보장되므로, 코팩츠를 이용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코팩츠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 J씨는 코팩츠가 “누가 어떤 규칙을 어겼고 운영진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기록해 공지하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말한다. 코팩츠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감할 수 있는 정보까지도 전부 공개한다. F씨는 검증 기록에 대한 의견을 밝힘으로써 팩트체크 콘텐츠의 편집(editing)에 기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각종 튜토리얼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고, 코팩츠 내의 팩트체크 과정을 돕는 이들이 한데 모이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행사가 주로 열리는 타이베이 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며 호텔에서 IT 지원 일을 하고 있는 F씨는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행사에 매번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코팩츠를 운영하는 이들이 오픈소스 데이터 집적 플랫폼 ‘해폴더(Hackfoldr)’나 실시간 협동 문서 플랫폼 ‘해MD(HackMD)’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늘 확인한다고 말했다.

I씨는 “코팩츠는 일반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고 책임을 묻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코팩츠의 자금 출처나 코팩츠에서 팩트체크가 이뤄지고 그 결과 제작되는 콘텐츠들이 분배되는 과정은 가능한 한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금의 투명성이나 방법론적인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가 결국 조직의 투명성 때문이라는 의미다. 이어 I씨는 “참여나 기여의 과정이 분명하고 공적이라는 점에서 코팩츠는 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각계각층의 시민 누구나 동등한 조건 하에서 접근, 이용,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코팩츠의 투명성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코팩츠가 조직의 투명성만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자금의 투명성이나 방법론적인 투명성 역시 실천한다. 코팩츠는 2017년 거브 제로의 보조금을 받은 데 이어 지금까지 다양한 조직이나 단체의 보조금을 물색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해 왔다. 코팩츠의 구성원들은 모두 시민 자원봉사자로 봉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코팩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 코팩츠를 운영하는 시민 기여자들은 적게나마 그동안 코팩츠가 받아왔던 지원금과 그 이용 내역을 전부 해폴더를 통해 공개해 왔다. 자금의 투명성이라는 원칙을 지킨 것이다. 방법론적인 투명성 역시 모든 이용자의 검증 기록과 근거가 공개되는 플랫폼 디자인을 통해 구현됐다.

6. 결론

이 연구에서는 대만의 코팩츠와 한국의 SNU팩트체크, 이렇게 두 개의 팩트체크 플랫폼에서 투명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비교민족지적으로 분석했다. 팩트체크 플랫폼이 지향해야 할 투명성으로는 재원을 어디서 공급받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공개하는 ‘자금의 투명성’, 플랫폼 운영 관련 정보를 널리 공개하고 운영 주체의 범위를 개방적으로 넓히는 ‘조직의 투명성’ 그리고 검증 근거를 분명히 밝히는 ‘방법론적인 투명성’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두 플랫폼이 이 세 가지 투명성 중 어떤 종류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는지를 탐구했다.

대만의 코팩츠는 세 종류의 투명성을 모두 구현하고 있으나, 처음 그 서비스를 기획했던 시민 해킹 커뮤니티 거브 제로의 탈중심성에서 영향을 받아 조직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운영

됐다. 대만의 코팩츠가 거브 제로의 영향 하에서 조직의 투명성을 중시하게 된 원인은 대만의 정치사회적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 민주적 개혁과 정보혁명으로 인해 전자정부나 정부의 정보 공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대만 사회에서는 개방적 협의(open consultation)를 요구하는 움직임에 따라 시민참여를 소생시키고 시민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프로젝트가 발전했다(Hsiao 외 4인, 2018).

한국의 SNU팩트체크는 IFCN의 원칙 강령의 영향을 받아 세 가지 투명성을 모두 제시하는 원칙을 세웠으나, 실질적으로 SNU팩트체크의 관계자들은 방법론적인 투명성을 가장 중요시했다. 이는 디지털 공간이나 참여 저널리즘 세팅 속에서 저널리스트들이 저널리즘적 전문성이나 기술로 스스로를 차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Riedl(2023)의 연구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차별화하는 기준인 검증 근거 제시의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소셜미디어의 범람으로 허위조작정보가 넘쳐나게 된 디지털 공간의 반민주적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해석이다.

지정학적 배경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힘 돋우기'나 '대중 관여'의 개념을 정리하려고 노력한 기존의 알고리즘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플랫폼이 지향해야 할 원칙이자 가치로 '투명성'을 제안했다. 학계에서 아직 투명성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팩트체크 서비스라는 영역에 한해 투명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탐구의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더 나은 팩트체크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언론인이나 학자들에게도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부생인 연구자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이용자로써 직접 참여하고 플랫폼 관계자 10명을 인터뷰하며 얻은 정보만을 바탕으로 수행됐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대만에서 교육받거나 거주한 경험이 없어 언어적,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대만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한국의 그것만큼 풍부하게 이해하지 못한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활용해 비교민족지 연구를 해 낸 만큼, 이 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남는다.

7. 참고 자료

- 전병근 (2021).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와 오드리 탕. *스리체어스*.
- Aladalah, M., Cheung, Y., & Lee, V. (2015). Uplifting citizens' participation: A Gov 2.0 conceptual framework. *Proceedings of the European Conference on e-Government, ECEG, 2015-January*, 9-17.
- Ananny, M. & Crawford, K. (2018). Seeing without knowing: Limitations of the transparency ideal and its application to algorithmic accountability. *New Media & Society*, 20(3), 973-989.
- Ash, J., Anderson, B., Gordon, R., & Langley, P. (2018). Digital interface design and power: Friction, threshold, transi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6(6), 1136-1153.
- Chong, E. (2023). Global fact-checkers have diverse backgrounds, but their pursuit of facts is universal. *Poynter*, Apr. 4th, 2023.
- Coddington, M., Molyneux, L., & Lawrence, R. G. (2014). Fact Checking the Campaign: How Political Reporters Use Twitter to Set the Record Straight (or No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9(4), 391-409.

- Han, K. (2018). Taiwanese Cofacts fact-checks information on LINE. *International Journalists Network*, Oct. 30th, 2018. <https://ijnet.org/en/story/taiwanese-cofacts-fact-checks-information-line>
- Hsiao, Y., Lin, S., Tang, A., Narayanan, D., & Sarahe, C. (2018). vTaiwan: An Empirical Study of Open Consultation Process in Taiwan. *SocArXiv xyhft*, Center for Open Science. DOI:10.31219/osf.io/xyhft.
- Hsuan, W. M. (2018). CoFacts, the chatbot that combats misinformation. *TICTeC 2018*, mySociety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4V2dpdmf8I0&t=2s>
- Kitchin, R. (2017). Thinking critically about and researching algorithm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0:1, 14-29.
- Lobo-Pulo, A. E., Fernandes, J. J. F. R., Hester, A., & Hum, R. J. (2019). Government and Digital Engagement Technologies: The Elusive Search for Consensus. *Canada Energy Regulator of the Government of Canada*, Aug. 29th, 2019.
- Riedl, M. J. (2023). Journalism as a profession of conditional permeability: A case study of boundaries in a participatory online news setting. *Journalism*, 24(4), 691-708.
- Torres-Toukoumidis, A., Lagares-Diez, N, & Barredo-Ibanez, D. (2021). Accountability Journalism During the Emergence of COVID-19: Evaluation of Transparency in Official Fact-Checking Platforms. *Marketing and Smart Technologies*, 561-572.
- Tseng, Y. (2022). Algorithmic empowerment: A comparative ethnography of two open source algorithmic platforms – Decide Madrid and vTaiwan. *Big Data & Society*, July-December, 1-14.
→ 'Tseng(2022a)'로 인용
- Tseng, Y. (2022). Rethinking gamified democracy as frictional: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Decide Madrid and vTaiwan platforms. *Social & Cultural Geography*, DOI: 10.1080/14649365.2022.2055779. → 'Tseng(2022b)'로 인용
- 2022 Taiwan Internet Report. *Taiwan Network Information Center*.
<https://report.twnic.tw/2022/en/index.html>